論　壇

1985년도 춘계

학생기생충 검사결과및 현황

한 인 수

1. 학생 기생충 관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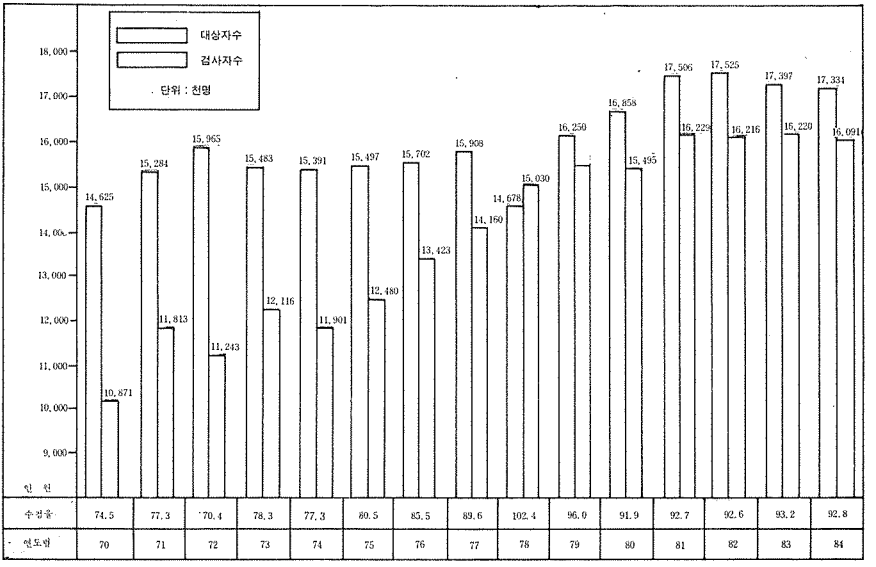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장내 기생충 감염은 우선 그 빈도가 아주 높다는 데에서 중요한 국민 위생 저해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장내 윤충류의 감염은 그 특징이 토양 매개성 윤충류가 대부분을 차지 한다는 것이며 이는 과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즉, 회충, 구충(십이장충), 편충, 동양모양선충과 같이 토양이 인분으로 오염되고 그 오염된 토양으로부터 다시 우리의 생활환경, 즐겨먹는 음식, 특히 채소나 과일, 그리고 손가락등을 오염시켜 기생충 감염을 일으켜서 기생충 감염의 악순환을 형성해 왔다. 이렇게 높은 감염율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은 그자체가 또 다시 감염을 유발하는 악순환의 시초가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양상을 특징으로 하는 토양매개성 윤충류 감염의 치료나 관리는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완전한 관리상태로 전환시키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기생충 질환의 예방과 근절을 기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6. 4. 25.법률 제1789호로 공포된 기생충 질환 예방법에 의거, 한국기생충박멸협회는 1969년도 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초·중·고 학생 기생충 검사를 춘·추로 년2회 실시해 왔으며 첫해인 1969년에는 기생충 충란 보유율이 73.1%이었으나 1985년 현재는 현격히 감소

하였으며 이것은 학생 기생충 관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결과이며 이결과는 본협회의 임직원의 노고보다는 보건사회부와 문교부 그리고 각급 학교 보건담당 선생님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성과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향후 일정기간만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면 선진국수준에 도달하여 기생충의 공포로 부터 벗어 나리라 사료된다. 그러면 1985년도 춘계 학생 기생충 검사 결과 및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서술코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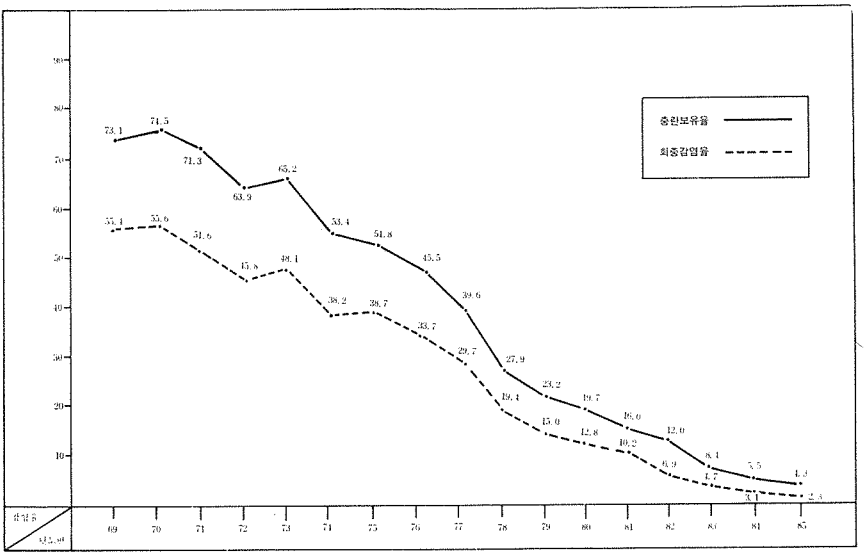
2. 학생 기생충 검사 결과 및 현황

1985년 춘계 기생충 검사 수검 학교는 국민학교 6,924개교, 중학교 2,427개교, 고등학교 1,645개교 총 10,996개 각급 학교가 참여했으며 대상 학생수 8,713,519명에 검사자는 92.8%인 8,086,382명의 학생이 기생충 검사를 실시했다. 연도별 전국 학생(초·중·고) 기생충 검사 수검 현황을 보면 "도표 1"과 같다. 검사 결과를 보면 검사 학생수 8,086,382명에 4.3%인 346,326명이 충란 보유자로 나타났으며 1969년의 충란 보유율 73.1%에 비해 68.8%가 격감된 상태이며 1984년 춘·추계 평균 충란 보유율 5.5%에서 1.2%가 감소 되었다. 연도별 전국 학생(초·중·고) 기생충검사 결과 충란 보유율, 회충 감염율은 "도표 2"와 같다. 충란별 결과를 보면 회충은 2.3%인 183,422명, 편충은 2.1%인 168,830명, 왜소조충은 0.1%인 8,518명, 간흡충은 0.08%인 6,568명, 요꼬가와흡충은 0.04%인 3,016명, 등의 기생충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도표 1〉 연도별 전국 학생(초, 중, 고) 기생충검사수검율 비교표



〈도표2〉 연도별 전국 학생(초, 중, 고) 기생충검사 결과
충란보유율, 회충감염율 비교표



회충은 1969년의 55.4%가 53.1%나 감소 되었으므로 회충 감염율 0%의 시기가 그만큼 단축되리라 사료된다. 시도별 기생충 검사 수검율은 경기도가 대상자수 955,364명에 947,349명이 검사하여 99.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검율을 나타냈으며 부산직할시가 대상자수 819,000명에 666,443명이 검사하여 81.4%로 가장 저조한 수검율을 나타냈다.

학력별 기생충 검사 결과의 충란 보유율을 보면 국민학교 5.3%, 중학교 4.0%, 고등학교는 2.9%로 고학년 일수록 감염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기생충중 회충 역시 국민학교 3.0%, 중학교 2.1%, 고등학교 1.3%로 저학년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학력별 기생충 검사 결과 충란보유율을 보면 국민학교는 전라북도가 12.1%로 가장 높았고 대구직할시가 1.0%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서울특별시 국민학교는 타기관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제외됐다. 중학교는 전라북도가 10.5%로 가장높고 서울특별시가 0.8%로 가장 낮았으며 고등학교도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전라북도가 7.9%로 가장높고 서울특별시가 0.8%로 가장낮게 나타났다. 각시·도별·구·시·군별 학생 기생충 검사 결과 현황은 "도표3"과 같으며 대도시는 중심지역이 외곽지역에 비해 충란 보유율이 낮았고 도별로는 대부분 도청소재지 지역의 충란 보유율이 낮고 도서벽지 지역이 역시 높았다. 특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용산구가 0.5%인데 반하여 전라북도 남원군은 35.0%, 전라남도 진도군은 28.6%, 경상남

〈도표 3〉각시도별 구, 시, 군별 학생 기생충검사결과 비교

시도별	낮은 지역		높은 지역		비 고
	지 역 명	충란보유율	지 역 명	충란보유율	
서 울	서 대 문 구	0.5%	도 봉 구	1.0%	
	용 산 구	0.5%			
부 산	중 구	0.9%	북 구	1.7%	
			해운대구	1.7%	
대 구	중 구	0.8%	북 구	1.3%	
인 천	중 구	1.2%	북 구	1.4%	
경 기	성 남 시	1.8%	웅 진 군	19.1%	
강 원	춘 천 시	2.7%	삼 척 군	10.8%	
충 북	충주, 제천시	1.7%	제 원 군	5.3%	
충 남	대 전 시	1.9%	금 산 군	10.2%	
전 북	전 주 시	4.3%	남 원 군	35.0%	남원군국민학교는37.5%
전 남	광 주 시	1.7%	진 도 군	28.6%	진도군국민학교는32.5%
경 북	구 미 시	1.6%	울 진 군	10.9%	
경 남	울 산 시	2.3%	남 해 군	24.1%	남해군중학교는25.6%
제 주	제 주 시	1.5%	북제주군	7.2%	

도 남해군은 24.1%로 아직도 일부 지역은 10여년전의 전국 평균 충란 보유율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3. 전망

기생충질환은 특히 미개발국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중요한 보건 문제이며 지역적및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집단에서 더욱 만연하여 문제가 되며 따라서 국가적 관리사업은 큰 의의가 있으며 세계적으로 보아도 우리나라처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생충 관리를 해온 나라도 없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기생충 감염율이 현저히 감소 현상을 가져왔으나 중요한것은 이 시점부터 어떻게 관리 하느냐가 기생충 관리의 성패를 결정하리라 사료된다. 기생충 관리의 성공적인 사례국인 일본은 1968년 2.9%의 회충보유율이 1979년에 0.1%로 감소되는데 무려 11년이 걸렸음을 상기 하지 않을수 없다. 저감염율일수록 그만큼 기생충 관리가 어렵다는 사례가 될수 있으며 일본을 이론적인 모델로 적용한다면 향후 11년후에는 학생 회충 감염율이 0.1%를 가져올 것이며 그러나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가 년 평균 감소율이 높고 지속적인 년 2 회 집단 검사및 투약, 환경개선, 보건교육등을 꾸준히 시행한다면 0%시기를 좀더 앞당길 수 있다고 사료된다. 〈필자=기협검사부장〉